

치사

불교수행의 정통(正統), 한국불교의 간화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승

오늘 동국대학교에서 간화선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여러 학자들과 미국·노르웨이·일본을 위시한 동서양의 학자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간화선의 전통과 실제 수행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전개될 지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간화선 수행은 중국에서 유래하여 한국과 일본에 전파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특히 한국의 불교는 간화선의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선수행의 방법으로 간화선을 유지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의 전통과 비교할 만한 외국의 수행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화선은 현대의 동아시아 각국에도 그 전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대륙에서도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학자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직접 실참에 드는 수행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함께 논하며, 우리와 타인을 보편적인 시각에서 함께 조망할 때, 한국의 간화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수행법이 제시되고 보급되는 이유는 시·공의 제약을 나름대로 해소하려는 노력입니다. 시대의 변천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간화선 수행법이 오늘날에도 옛날처럼 효과적인지, 다른 문화전통에서는 유효한 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 주십시오.

간화선에 대하여 세계의 여러 학자를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를 넘어서 세계 선수행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수행에 전념하신 여러 선사

들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게 된 것은 이론과 실천의 두 영역에서 간화선의 의의를 찾아보려는 시도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학술행사는 간화선에 대한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행사를 통해 간화선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관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부디 참석자 여러분들도 이번 행사에서 여러 학자들의 발표와 스님의 법어를 듣고 마음에 감동하는 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2일